

특별취재



**부안군의회 지방자치의 날 맞아
군민 정병원 씨 등 유공자 표창**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는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부안군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군민 정병원·김세권씨, 공무원 김화순·김미란씨에게 전북 시·군회의회장단 협의회장 상을 수여했다.

대명리조트 변산 총지배인 정병원씨와 신영여행사 대표 김세권씨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왔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민원소통과 김화순 팀장과 김미란 주무관은 지난 8월까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원활한 의사활동을 돕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해 의원 및 주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시민 눈높이 맞춘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김제시가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의 길 찾기 편의와 새주소 활용 확대를 위해 보행자 눈높이에 맞춘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한다.

총사업비 2천만원(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확보해 설치하는 이번 도로명판은 보행자 눈높이에 맞춘 도로명판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새주소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지평선산업단지 내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올 상반기에는 긴급 상황에서 쉽게 본인의 위치를 찾거나 알려줄 수 있도록 건물에 없는 외곽 도로에도 기초번호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은 "기존 도로명판이 도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등에 놓여 설치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시민들이 도로명판을 올려다 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설치되면 시민들의 길 찾기가 한결 쉬워져 도로명 주소가 더욱 쉽게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진료소 선진지 견학

김제시 보건소 관내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견학 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10일 방문하여 사례 및 현황 등을 직접 견학했다.

이날 공주시의 견학팀은 상정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2016년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 등을 듣고 선진지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김제시보건소 담당자는 김제시의 보건진료소가 1차진료,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에 힘써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건강증진실, 찜질실 운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심신의 건강 도모하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사업으로는 각 보건진료소의 실정에 맞춘 노인정서지원, 대시중추군 관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래교실, 요가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싶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은 "26개의 보건진료소가 협력하여 국가급 검진사업 대상인 수검 독려에 앞장서서 건강검진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건강생활 실천을 지도하여 능동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지역 은누리 상품권 판매금액이 크게 늘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 은누리상품권 판매금액 늘어

올해 현재 기준 26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

정읍지역 은누리 상품권 판매금액이 크게 늘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은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 판매액은 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 증가했다. 이처럼 판매금액이 늘어난 것은 개인 현금 구매 시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다 김제시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전 공무원들이 매월 약 3천만원의 상품권 구입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체,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협약 등을 유도해 상품권 구매와 활용을 이끌어낸 점도 판매액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와 관련, "상품권 구매 자체가 서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협력에 큰 도움이 됨에 따라 지역 내 시장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전 공무원들이 매월 약 3천만원의 상품권 구입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상품권 이용 확산은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음은 물론 역외 자금 유출을 막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통시장 이용 확산을 위해 상품권 구매 확대 홍보와 더불어 공동 쿠폰제와 T마켓시민회원제, 배송서비스, 주말상설공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편성되도록 신중기할 것"

14일부터 정읍시의회 정례회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된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크고 작은 사업을 뒤돌아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 또한 2017년 새해 예산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이나 선심성 예산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서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이다. 제2차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4일 첫째날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섭 의

장의 개회사와 김생기 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결정하고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이며, 12월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고, 12월 13일부터 15까지(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2017년도 예산안 승인 후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위, 어려운 이웃에 '사랑나눔쌀' 전달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종욱)는 10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방문 '사랑나눔쌀'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랑나눔쌀' 전달행사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관내 경로당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함께 사랑을 전달해 용

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행사를 준비한 조종욱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늘 전달한 작은 사랑이 우리 지역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환 교월동장은 "항상 지역의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해주는 주민

자치위원들이 있어 더불어 함께하는 교월동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된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위의 소외계층,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기탁, 취약지역 청결활동 및 365 태극기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추운날씨, 사랑의 연탄 500장씩 전달

김제시 지평선중고교 20여명

지평선중고등학교(교장 정미자)에서는 지난 9일 선생님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학생 20여명 그리고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공동체원이 힘을 모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등 총 3가구에 한 가정당 500장씩 연탄과 난방류 기물을 직접 전달하였다. 지평선 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이 1년 동안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이 같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제대로 월동준비를 하지 못했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중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우는 이론보다 이웃사랑을 몸소 체험하고자 추운 날씨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손수 연탄을 나르겠다는 소식을 듣자 희망드림 복지공동체 대원들도 한마음이 되어 연탄 나르기에 동참하였다. 정미자 지평선중학교장은 "이러한 정미자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마워하는 분들을 보며 모처럼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했던 학생들도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는 바가 더 많았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연탄 전달식을 계속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학생들과 희망드림 복지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줄로 서서 연탄을 한장 한장 쌓는 훈훈한 모습에 가슴 뭉클했다"며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천사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김제시자보센터, 영세가정에 1500장 전달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는 지난 9일 영세가정 및 독거노인(요촌동 교월동) 4세대 에 총 1,500장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는 덕암정 보고등학교 학생 30여명 및 요촌동 복지공동체 10여명이 참여하여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나눔은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의 영세가정과 독거노인 세대들을 대상으로 연탄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고등학생들이 봉사에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함께 사는 분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연탄을 하나하

나 꺼뜨리지 않기 위해 여념 없었다. 이번봉사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웃사랑 실천의 장이 되었다. 정창섭 센터장은 "덕암정보고 학생들과 복지공동체대원들이 봉사로 하나 되어 연탄을 나르는데, 서로 얼굴엔 개말개 말 연탄이 묻었지만 그 누구보다 하얗게 빛나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간의 서비스 제공과 수혜로 아름답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6년도 생물테러 대비·대응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1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16년도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

정읍시 생물테러 대비 '최우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정읍시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6년도 생물테러 대비·대응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16년도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5일 정읍시 종합경기장에서 생물테러 초동대응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정읍시보건소와 육군35사단 105연대 8088부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 아산병원 등 9개 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훈련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가장한 출동 훈련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교육, 도내 13개 시·군 담당자 대상 생물테러 대비·대응 개인 보호복 착용

탈의 경연대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훈련은 실제를 방불케 해 관심을 모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 훈련을 평가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국제 분쟁과 미군 탄저균 배설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탄저균과 두창, 페스트와 같은 생물테러 발생시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과 효율적이고 탄탄한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테러·구급 대응 훈련 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상시 구축해 생물 테러 감염병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초등 대응과 피해 최소화로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보건소, 구조·응급 처치교육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사회복지사 등 100여명 참석

부안군보건소(소장 김달천)는 지난 9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제세 동기) 관리자 및 읍면 사회복지사,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인준수치, 각종 질환 응급처치와 구조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기본 인명구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이뤄졌다. 교육은 중앙 EPR 교육센터의 응급구조사와 보조강사 등이 강사로 나

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훈련 매뉴얼에 의해 참석자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이뤄져 큰 효과를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에 대해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인명구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달천 부안군 보건소장은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급처치교육으로 환자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